건강한 라미란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17호 1판 (음력 5월 18일)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지방선거 1년 앞으로…'1승1패' 민주당·국민의당 3라운드 잰걸음

광주·전남 12년만의 양당대결 텃밭 쟁탈전 벌써부터 뜨겁다

민생대장정·당원 배가 운동…조직 재정비 지지세 확장 총력

내년 6월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텃밭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대결 이후 12년 만의 양당 대결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과 올해 '5·9 장미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지역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전남에서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0명, 기초의원 311명 등 모두 422명(2014년 6·4 지방선거 기준)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9 장미대선' 압승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와신상담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당이 또 한 차례 사활을 건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9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별로 당원 교육이나 토론회 등의 형태로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이 나서 지방선거 준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지난 2일부터 전북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면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시작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당원 확장 캠페인인 '100만 당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기획단 등 지방선거 준비기구도 조만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호남에서 80~90%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60%대의 여당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평가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지난 '5·9 장미대선'에서 당내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에 완패함에 따라 호남 재탈환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광주·전남에서 완승을 거둔 지 1년 만에 호남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줬다는 상실감과 패배감이 상당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지지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내년 호남의 지방선거 결과가 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민심은 대선 공약 추진 여부와 내년 국가 예산 확보 성적표 등을 꼼꼼히 따져 보며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국가 예산 성적표가 시원찮으면 민주당에 거센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당은 국회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잘못했을 경우 지역 민심의 질타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만큼 1년 남은 지방선거까지 어떤 정치적 변화나 변수가 나타날지 모른다"면서 "따라서 양당 모두 1년여 간 지역민심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남로에 울려퍼진 '6월 함성' 6월 항쟁 30주년인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6월 민주항쟁 30주년 민주 대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5·7면 /나명주기자 mjna@

文대통령 첫 시정연설…꽉막힌 인사정국 풀릴까

국회 오늘 '김이수·김상조' 채택 재논의…3野 강경화는 거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거취가 문재인 정부 초기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국회에 따르면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강한 거부로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세 사람 모두 부적격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협조적인 자세만은 아니어서 채택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오는 14~15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어 이번 주 국회는 여야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이들의 임명 여부는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 주도권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중부터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 개편이 그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협치의 종료 선언을 의미한다며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취임 34일째인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협치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꽉 막힌 인사 정국을 국회가 원만히 풀어 달라고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고용 조대엽·환경 김은경

文대통령 5개 부처 장관 인사…국세청장 한승희·환경 안병옥 등 차관급 10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광주출신인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안경환 법무 조대엽 고용 김은경 환경

또 국세청장에 한승희(56)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하고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59)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환경부 차관에 순천출신 안병옥(54)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72) 고려대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프로필 2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또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9일에 이은 5번째로, 이로써 현행 정부 직제상의 17개 부처 중 18명의 차관(일부 부처 복수차관 등 포함)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노태강(57) 전 문화부 체육국장,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용진(56)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손병석(55)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법제처장에 김외숙(50)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황인성(64) 한신대 외래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청와대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5대 원칙' 위배 여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었지만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송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는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돼 청문에서 위장전입인지 다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사전에 공개하면서 "가급적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봤는데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고 청문회에서 다뤄질 기준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HNT 하나투어
무안↔하노이 직항
하노이·하롱베이
6월 3일(토)~7월 1일(토) / 8회
7월 29일(토)~8월 14일(월) / 5회
비엣젯항공(VJ항공) : 3박5일/총 13항차 운영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062)228-1199
하나 Pack 캐주얼 AVPF11_VJ2
하롱베이 비경관광($50상당)
하노이·하롱베이·옌뜨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항공 : 비엣젯 항공 (VJ 항공)
포인트 : 하롱파크 ($50상당)
특식 : 3회(오삼불고기/락비엣 레스토랑/노니보쌈 정식)
쇼핑 : 4회
하나골프 AVGF10
[골프+관광] 36H + 4명이상 출발가능
하노이 골프+하롱베이 5일
총 상품가격 1,0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항공 : 비엣젯 항공 (VJ 항공)
포인트 : 마스크팩+간식바구니 현지 제공
특식 : 2회(오삼불고기/쎈 레스토랑 뷔페식)
쇼핑 : 3회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관람일자 : ~ 17년 7월 16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